**롬0117 Note**

**◆믿음의 좌표: 썬다싱의 명상 #169**

169. 사람들 중에는 이쪽도 저쪽도 부인하지 않는 것을 현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니하는지 인간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이론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여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적 욕구 없이 창조되었다면 그것은 창조의 본의에 위배되고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어미에게서 아이가 낳아질지라도 그 아이는 또한 어미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이다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어미를 사랑하나 어미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어미를 사랑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이는 자랄수록 더 알게 되며 어머니와 친교에 따라 충분히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광대 무변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끝이 없다

우리는 진보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생명을 주시는 임재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현재는 충분히 모른다 해도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피조물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요 운명인 것이다

만약 현 단계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조물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알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시기도 하신다

배우는 자에게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는 자가 더 알게 된다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내 자신의 자각으로 경험에 의하여 아는 것이 보다 참되게 아는 것이다

또 믿기 전에 지식이든 경험으로든 알려는 것은 결코 참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즉 알기 전에 믿음이 필요하여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뜻이다

결국 먼저 믿음에 의하고 그 뒤 지식이 오고 다음에 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순서이다

<그발 앞에 엎디어 p37,썬다 싱>

가치의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한 권능이나 은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써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퇴화하여 마침내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접붙여 있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자극받아 부서져서는 마침내는 의심이라는 형태로 변질되어 버릴 것이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 의혹이 풀려진다면, 나는 믿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아픈 환자가 자신의 상처를 의사에게 보이기 전에 통증을 없애달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다.

몸의 통증은 병으로 인한 것이니,그 아픈 병이 나으면 자신의 통증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영의 통증인 '의심'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 부분에서의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게 된다. 그럴 때 놀랄만한 평강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한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파멸의 나락에 떨어진 불쌍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인 육체를 취하였었다.

이것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발 앞에 엎디어 p29,썬다 싱> 한 식구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나에 대하여' 아는 자가 많으나, '나를' 아는 자는 적다,

그것은 저들이 나와 개인적으로 직접 관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참 이해도 없고 나의 안에 있는 믿음도 없고 나를 자신들의

구주와 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붉고 푸르고 노란 여러가지 빛깔에 대하여 말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아름다움과 그것을 바라볼 때의 기쁨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이 그들은 그 어떠한 가치도 모르고 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명목상의 이해밖에는 모른다.

그들이 진정으로 눈을 뜨기 전에는 참 빛깔을 알 수 없단다.

이처럼 비록 지식이 많고 박학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안이 뜨이기 전에는 나를 알아볼 수가 없고 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닫지 못한단다.